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 TEL:(0343)470-3155

내면의 '父' 믿어야 현실의 '子' 상봉

여러분과 앉았는 사이 없이 한도량에 함께 앉았습니다. 찰나찰나 이렇게 옮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함이 없이 하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날아다니는 새들도 깃을 다듬고 날 듯이 우리도 생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집니다. 생각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못됩니다. 서로 더불어 생각을 하고 사는 거니까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도인과 범부의 성내는 차이점

문 저는 부산지원의 이하경입니다. 항상 이러한 법문자리를 마련해주시는 큰스님께 고맙고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저희들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성을 낼 수 있습니다. 깨달으신 분과 깨닫지 못한 범부의 성내는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착이 있게 성을 내는 거와 착이 없이 성을 내는 건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성이 나지 않고 성을 내는 것 즉 말하자면 착이 없이 성을 내는 것은 성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착을 두고 성을 내는 것은 바로 그것이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 한 계단 차이, 한 생각 차이의 문제로 공덕이 되느냐 사복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사람 사람이 누구나가 다 한 생각 차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것도 참 극치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아주 쉽다 하는데도 그게 어려운 문젭니다. 착을 두지 않고 그냥 말을 하느냐 성을 내느냐 화를 내느냐 하는건 가르침에 의해서 그건 방편이지 진짜로 성을 낸 게 아니 됩니다. 그리고 착을 두지 않고 그냥 평등하게 하면서 성을 내는 그것은 바로 어둠이 개이는 소리라고 봅니다.

새 · 나뭇잎도 법문한다는 뜻

문 두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일체가 법문이 아닌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법문하고 바람에 굴러가는 가랑잎이 법문한다면 그 법문은 어떻게 다르옵니까?

답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만이 법문이 아니고 문이 없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법문을 할 때에 법문함이 없이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지금 말을 서로 나누지 못하는 이치들, 나무하고나 새하고나 꽃하고나 물하고나 모두 서로 말을 나누지 못하시죠. 그런데 나눌 수 있는 것은 내 내면에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근본 나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뜻으로서.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도 모르는 거 없이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두가. 그러니 우리가 서로 말을 할 줄 모르고 말을 나눌 줄 모른다고 해서 통신이 안되는게 아니라 모습 없는 모습의 나가 모든 일을 다 해결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더라도 그것이 착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잘못하는 것은 용서가 되고 회개가 되지만 그것이 아주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공덕도 되지 않고 용서도 될 수 없고 회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 같아도 이게 크고, 큰 거 같지만 조그맣고, 아주 많지만 없고, 없지만 그냥 허공에 꽉찼고 이렇게 되는 거죠.

> 나의 모습 아닌 나는
> 불에서도 타지 않고
> 물에서도 죽지 않아

법좌서 말없이 내려오는 법문

문 마지막 질문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 법좌에 오르셨다가 아무 말씀 안하시고 그대로 내려오신다 해도 역시 법문하신 걸로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신도들은 어떤 법문을 듣게 되겠습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신도들의 문없는 문이 열리고 또는 함이 없이 하는 도리의 근본을 안다면,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자(子)로 하나로 되고 말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父)로 하나가 돼서 모두 그것을 알고 들을 줄 알죠. 말이 없어도 들을 줄 알고 말이 있어도 들을 줄 알고 그래서 함이 없이 하고 들은 사이 없이 듣는다 이겁니다. 참, 우리 회장님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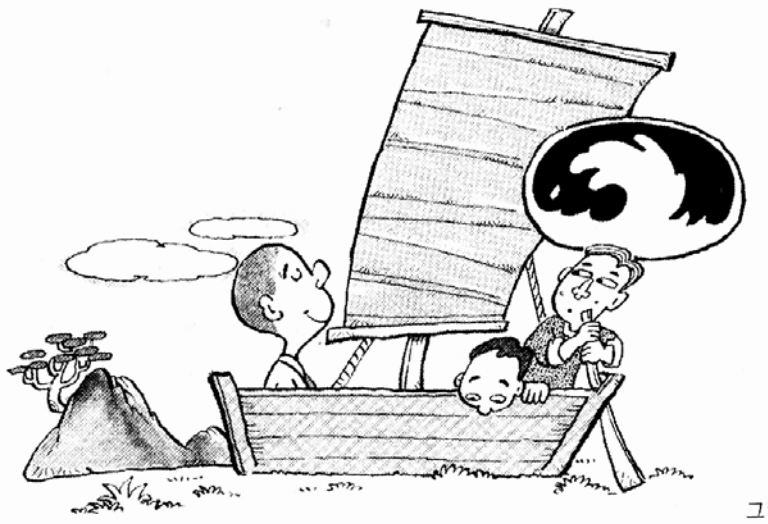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만법 하나로 돌아가듯 전력창고도 하나

돌계집이 해산한다는 뜻은…

문 부산지원의 현성기입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큰 가르침을 내려주시는 큰스님, 새해에도 늘 편안하신 삶과 금강같은 기력이 충만한 육체를 보존하옵기를 기원드립니다. 큰스님의 위대하신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만은 그 누구못지 않게 간절합니다마는 아직도 너무나 무지하기에 그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큰스님의 법문집인 '한마음요전'을 여러번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예화 한편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제목은 '돌계집의 해산'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지식께서 말씀하시길, "얘야 지금 급하게 오던 길에 아주 무겁고 요지부동한 돌계집이 애를 낳았어. 그런데 지금 해산 구완을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시면서 한 귀를 일러 보아라 하였다. 큰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하겠는가? 가볍게 해서는 아니된다. 흔히 그냥 이대로가 법이니 방편에 걸려서는 안된다고 하는가 하면은 돌계집이 따로 있고 애 낳는게 따로 있느냐 하는데 말씀하신 뜻과는 천지차이다. 한 귀를 일러보아라." 뭐 저희같은 범부들 경우에는 그저 들은 지식으로 풀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둘 아닌 그 자리에 답이 나올 때까지 참구해야 되는지 큰스님의 가르침 부탁합니다.

답 우리가 공부한다는 이 길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아주 가까우면서도 멉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스님이 어떠한 방편을 내놓으신다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함이 없이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도 떠나서 놀러 나왔다가 놀다가 들어가는 거나 같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데 그 내면의 자기 과거의 부(父)를 믿지 않으면 현실의 자(子)와 상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봉이 된다 하면 뜻으로서 말없이 서로 말을 나눌 수가 있고 또 그 도리도 알 수 있고 모두 알 수 있는건데 그걸 말로 가르쳐 주면 여러분이 그냥 말로 알아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돌계집이라고 해도 좋고 목신집이라고 해도 좋고 석신이라고 해도 좋고 어떠한 거라도 다 용납이 되죠. 그 내면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둘 아니게 상봉한다면 말입니다. 뜻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지식들께서 법회하시는데 모두 가서 서 계시다가 설법을 하면은 "이 놈아 네 말 좀 해라. 원숭이처럼 남의 말만 하지 말고 네 말을 해라." 이러고 주장자를 쳤다고 합니다.

집안에 천식이 유전돼요

문 저는 부산 법형제회의 정승용입니다. 유전성에 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선친께서는 70세에 천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큰아이도 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집안의 유전성인지요? 만일에 유전성이라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딸아이는 자기가 중심을 잃고 있을 때 반드시 천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뭐를 붙들고 있으며 뭐를 놓치고 있는지 되돌아 보고 그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거짓말같이 천식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이 천식이 게으른 자기의 공부를 위해서 나툰 주인공의 작용이라고 믿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씩 천식으로 인해서 호흡에 괴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한번 정말 훌쩍 뛰어 넘을 수 있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게 여러분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우리가 이 세상에 생겼을 때에 생긴 자체가 바로 내가 내 근본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종자가 있으니까 생긴 겁니다. 그러니 그 종자를 믿어야죠. 믿는다면 아무 문제 없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믿으면 그냥 훌떡 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유전성이라는 건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할아버지도 그랬으니까 유전성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앙금 말이예요. 무조건 그냥 믿는다 이런다면 그 앙금도 없어질텐데 이럭하면 없어진다는 건 아는데 그 앙금이 지워지질 않아요. 그러니 그 앙금마저도 없애려면 진짜로 믿어야 한다.

예전에 내가 이런 말을 했지요. 종문서를 없애야 할텐데 종문서를 가졌다가 도로 놓았다 가졌다 도로 놓았다 이러니까 이것이 유전성이나 업보성이나 영계성 인과성 모두가 주둔해서 그렇게 생긴대로 나온다구요. 또 내가 그랬죠. 이 누진에는 바로 자동 컴퓨터와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과거로부터 살아오면서 누적된 입력이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자꾸 놓아들어가니까 앞서의 입력이 자꾸 없어진다구요. 그러면 유전성도 녹아서 없어지죠. 그 앙금마저 없애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유전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유전이라는 거지 유전이라는 언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옛날에 이런 점이 있지요. 부처님께서 사제법을 먼저 가르치시고 뒤에 하도 이 말 저 말 사단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 둥근 공이 있는데 공을 누가 움쭉거리게 하느냐? 또 그 공 가운데엔 티끌만한 공이 있는데 그 공을 누가 쉬지 않고 튀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 봤더랍니다. 물어보니깐 하나도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모두 다 알수 있으니까 여러 말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거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더랍니다.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다기 보다도 우리가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떠 다니는 공과 같습니다. 티끌 공! 그 공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그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 공이 자기의 티끌만한 공 속에서 빠져야 큰 공 속에서도 빠지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마시고 아주 간편하게 쉽게 생각하세요.

☞ 14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삼 · 부 · 농 · 산 · 은 · 슈 · 기 · 재 · 배 · 약 · 초 · 만 · 을 · 생 · 산 · 하 · 고 · 있 · 습 · 니 · 다.

97.11.6/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 삼불초의 놀라운 성분들 ■

황 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大悟居士
(김봉서 원장)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삼 부 농 산
SAM BU Far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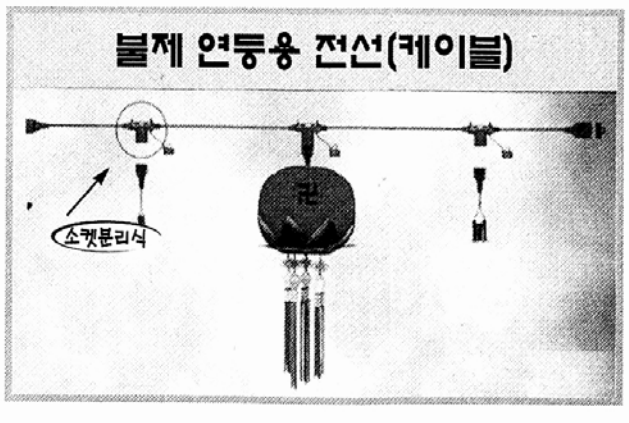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 사용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용)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시하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불제 연등용 전선(케이블)



■ 전 등 배 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본사 영업부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卍 대원기업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 · 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